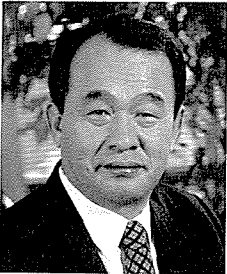


기업이 사는 길은 독창적 기술개발뿐...



李 璟 浩
〈한국후지츠(주) 대표이사 사장〉

기술과 인간생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과학 기술에 대해 높이 평가를 하지 않았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한 잘못을 일거에 불식이라도 하듯 요즘은 너무나 없이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여념이 없다. 재벌그룹의 신입사원 채용 비율이 8:2로 이공계를 선호하는 것이라든가, 핵에 관한 전문지식없이 외교교섭을 행할 수 없는 국제현실을 보아도 기술의 영향력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과학기술은 종래 냉전체제 아래에서 국제질서 유지의 유용한 수단이었던 군사력의 유지에도 큰 몫을 해왔지만, 지금은 인간생활의 편리성과 안락성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다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기술이 사회구조의 변화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TV보급이 요즘처럼 보편화되지 않았던 십여년 전만 하더라도 지방나들이를 하게되면, 지방 특유의 방언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없지 않았다. TV가 대량 보급되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사라진 것은 물론, 매스컴이 토해내는 대량정보의 영향때문에 모든 사람의 의식도 대중화, 평준화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요즘은 CATV다, 멀티미디어다하여 단순히 획일적인 대량정보의 수용에만 그치지 않고, 쌍방정보 또는 개별정보를 교환하는 데에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을

띄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개성화가 더욱 촉진되고 생활이 더욱 다양화해 지는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요즘 흔히 이야기되고 있는 정보화 사회란 것도 컴퓨터, 통신기술이 일으킨 사회구조의 변화에 다름 아닌 것이라 할 것이다. 이렇듯 많은 부문에서 기술의 힘을 느낄 수 있지만, 기업인의 입장에서 기술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산업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기술의 개발문제일 터이다.

기술과 기업경영

소련의 붕괴로 초래된 냉전체제의 종식과 UR협상 타결로 이어진 WTO체제의 출범으로 경제의 무국경화, 세계화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는 바야흐로 무국경의 경제전쟁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느낌인데,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기술이전 장벽도 높아져서 과거와 같이 상품개발의 기본이 되는 기초 과학기술의 무임승차는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하면 정보화의 진전으로 고객의 상품에 대한 입맛은 더욱 까다로워지고 다양화됨으로써 고객만족을 위해서도 부단한 기술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더 더욱 과학적 지식이나 기술이 상품화되는 비율이 전에 비해 훨씬 광범하고, 그 시간이 매우 단축되어 기술개발을 위해 신속한 대응력을 갖춘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형편에 이른 것이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력 개발은 일차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기업존립의 관건이 되고

WTO체제출범 후 세계는
바야흐로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제 상품개발의 기본이 되는
기초과학기술의 무임승차는 없다.
기업이나 국가가 사는 길은
오직 독창적인 첨단과학기술
개발 뿐이다.

있지만, 이를 좀더 크게 보면 특정기업이 속해 있는 국가의 존립조건도 되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유행되고 있는 기술패권주의라든가 기술이 곧 국력이나 주권이니 하는 말들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결국 기업인의 눈으로 보아서는 기업, 국가가 사는 길은 오로지 과학기술개발 밖에 도리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

흔히들 기초기술은 미국, 응용기술은 일본이 우수하다고들 평하고 있다. 최근 2,3년 전까지만 해도 응용기술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한 일본기업의 경영방식이 매우 주목을 받아, 세계의 모든 기업이 이를 본받으려는 경향을 강하게 보여 왔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일본에 밀리던 미국기업들이 경쟁력을 회복하여 역전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일차적으로 엔고, BPR, 벤치마킹, 다운사이징 등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지만,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기초기술력이 바탕으로 깔려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기초기술력의 중요성을 인식한 일본도 기초기술 확보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응용기술의 개발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른 한편 미국, 일본간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제휴협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결국 기초기술과 응용기술은 모두 중요하고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모든 기초기술과 응용기술을 다 구비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선택이 필요하다. 특히 기초적인 과학기술

이 요즈음과 같이 재빠르게 상품화될 뿐 아니라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매우 짧아진 오늘날에 있어서는 제품개발에 가장 근본이 되는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술은 또한 독창성과 초일류성을 가져야만 기업간 경쟁에 있어서 생명력을 갖게 된다.

과거와 같이 모방형 기술개발이 유행했던 시절에는 되도록 빨리 남의 기술을 모방해서 다소의 플러스 알파를 가미하는 것으로 충분했지만, 기술장벽이 보편화된 현재의 WTO체제 아래에서는 기술의 무제한적 사용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돈으로 기술을 사든가 독창적 기술을 개발하여 기술로 기술을 사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 경우 독창적 기술이란 무한경쟁 체제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세계 제일의 기술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겠는데, 그것은 어설픈 비교우위기술을 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오늘날과 같은 개방체제 아래에서는 전 세계에 눈감 짝할 사이에 파급될 것인 즉,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세계 제일의 독자적 첨단기술이 아니면 오래 버티기가 힘들게 된 것이다.

기술혁신을 위한 과제

기술개발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몇가지 과제를 들어보자.

먼저 독점적 기초기술의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과거에는 선진국이 기초기술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이제는 특허를 무기로 기술전쟁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업환경에 적응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으로는 효과가 없고, 개발품도에 가장 적합한 독점적인 기초기술을 몇 가지로 특정하여 집중 개발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개발을 통해 기업간 또는 국가간의 기술제휴 내지 전략적 기술동맹도 이룰 수 있고, 기술주권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위기의 조성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점이다. 연구소, 대학 등 연구 중심기관의 내실화를 기하고 기술력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수립이 긴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기초기술분야는 산·학·연의 연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원에 대한 파격적 대우는 물론 연구원들을 범국가적으로 우대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경우, 기술개발 인력을 중시하는 경영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장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고객만족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초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합치되는 상품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실험실에서 곧 제품이 탄생되는 경우가 생길 정도로 연구실적과 제품과의 시간적 간격도 매우 축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과학적 원리의 발견이나 발명이 곧바로 산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는 등, 이른바 과학과 기술의 통합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기업경영의 핵심요소로서 생산, 판매에 못지않게 기술의 연구개발에 큰 비중을 두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자명해진다고 하겠다. ⑤7